

호남대 통합뉴스센터 '전문가 초청 교육'



기자는 지역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아나운서는 어떻게 시청자들에게 신뢰감을 줘야 할까.

호남대 통합뉴스센터가 대학생 기자 및 학과 홍보기자를 대상으로 '2016 전문가초청 집중교육'을 실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교육은 홍보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중견 언론인들을 초청해 지난 3월 28일 시작, 오는 4월 2일까지 진행된다.

광주일보 기현호 전 편집국장이 지난 28일 '언론보도의 중요성'을 주제로 '기자의 역할', '기사 작성의 요건' 등을 강연한 것을 비롯, 이연수 신문방송학과 교수(29일), 나선희 전 광주MBC 아나운서(31일), 김양배 전남일보 사진부 부국장(4월 2일) 등이 강단에 올라 전문 분야에 대해 설명한다. 통합뉴스센터는 매년 언론인 자질 함양과 실무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한 집중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신세계백화점에 친환경디자인박람회 홍보관

개막을 한 달여 앞둔 2016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 홍보관이 광주신세계백화점 1층에 들어섰다.

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조직위원회는 오는 5월 5일 개막하는 박람회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기 위해 백화점 북미가 세일이 시작되는 지난 31일 홍보관 개관식을 갖고 내달 10일까지 운영한다.

홍보관은 광주 신세계백화점 1층 중앙 로비에 블루시스템을 이용해 설치돼 홍보영상물 상영, 친환경디자인작품 전시, 주제전시관과 문화행사 소개 등을 통해 박람회장을 미리 보여준다.

유영관 조직위 사무국장은 "광주 신세계백화점은 호남의 대표적 쇼핑타운일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광주를 찾는 관문인 유스퀘어 터미널이 함께 연계돼 있어 전 국민에게 박람회를 홍보하기에 최적의 장소"라며 "5월, 아이들 손을 잡고 소풍 오듯 박람회장을 찾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대병원 캄보디아서 해외봉사 활동

전남대병원 사랑나눔의료봉사단(단장 윤택립)이 캄보디아 바벳시 일원에서 해외의료봉사 활동을 마치고 지난 30일 귀국했다.

지난 24일 새롭게 출범한 사랑나눔의료봉사단은 아시아국가 중 의료환경이 열악한 캄보디아의 주민에게 의료혜택을 제공 등을 위해 지난 25일 출국한 바 있다. 봉사단은 윤택립 병원장을 단장으로 정형외과·흉부외과·산부인과·내과·소아과·안과·피부과 등 의사 9명과 간호사 6명, 약사 1명, 행정 1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3일간 의료봉사를 통해 지역주민 총 3028명을 진료했다.

윤택립 병원장은 "이번 의료봉사를 통해 빈곤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전남대병원 의료혜택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독거노인과 한끼 식사하며 외로움 달래 드려요”

'밥친구' 맺어주기 나선 '스토리부엌 청춘맛집' 박재식 씨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홀로 식사하는 독거노인들이 늘고 있다. 혼자 밥을 챙겨 먹는 청년들도 많다. 이웃과 한끼 식사를 함께 나눔으로써 새로운 가족문화를 만들자는 공동체 캠페인에 나선 30대 청년이 있다.

이른바 1인 NPO(Non Profit Organization·비영리민간단체) '스토리부엌 청춘맛집'의 박재식(35)씨다. 대학에서 호텔경영학을 전공한 그는 최근 광주에서 '빨간 냄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빨간 냄비'는 홀로 식사하는 어르신 '밥친구'와 '밥지기'를 서로 연계해주는 프로젝트다. 밥지기는 요리를 배우고 싶고 이를 바탕으로 봉사하고 싶은 사람들이다. 이들을 연결해주는 게 '이웃지기'다. 이 역할을 맡으면서 빨간냄비 문화를 확산하는 주인공이 박씨다.

"한 끼 식사 의미는 되돌아보자는 취지에서 시작했습니다. 20대는 80대든 전 세대에 걸쳐 혼자 생활하고 인간관계마저 단절되는 일이 흔하게 나타나고 있어 안타까웠어요."

박씨는 주변 이웃들이 느끼는 고독감과 외로움은 누군가와 한끼 식사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쉽게 풀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웃간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또 다른 가족으로 이어지도록 돕는 '작은 행동'이라는 것이다.

그는 초고령사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해를 거듭할수록 노인들의 사회활동 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안타까워 했다. 홀로 지내면서 끼니조차 챙겨먹지 않고 TV를 보다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물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정부가 모두 돌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들을 가장 쉽게,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웃'이라고 덧붙였다.

박씨는 보다미디이그를 독립다큐멘터리 팀과 빨간 냄비 프로젝트를 7개월간 진행하고 있다. 5개월 동안 국내외 사례를 조사한 뒤 광산구와 남구에서 모임결성을 추진했다. 프로젝트의 필요성과 취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다. 그 노력 덕분에 광산구 운남동과 신가동에 밥지기 4명과 밥친구 7명이 '빨간 냄비'에 동참했다.

호남대 식품영양학과 학생들은 또 지난 24일 '빨간냄비와 함께하는 건전MT'를 열기도 했다. 구례군 원촌리에서 요리개발 경연대회를 열고 인근 독거노인 10여명에게 각각 맞춤형 요리를 대접했다.

박씨는 전역 후 돌연 캐나다로 유학을 떠났다. 편입점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했던 그는 '꽃기는 삶'이 싫어 '무일푼' 유학길에 올랐다. 5년 만에 누나 결혼식 때문에 한국에 돌아



왔던 그는 캐나다로 돌아가지 않았다. 귀국한 뒤 농촌지역의 삶을 둘러보던 그는 농촌 아이들과 도시 아이들의 교육문화 격차를 줄여보려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북 장수군에 있는 빈집을 빌려 농사를 짓고 살았다. 마을 옆 대안교육센터 '철딱서니학교'에서 아이들을 보살피면서 1년간 농촌 교육문화 운동에 힘썼다.

"시골에서 살아보니 어르신과 아이, 청년 등 각 세대간 대화가 단절돼 있었습니다. 지속되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이웃들끼리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자발적인 운동을 펼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박씨는 "아직 직장이 없어 아르바이트나 매달 소정의 활동비를 후원 받아 빨간냄비 활동을 하고 있지만 힘든 게 사실"이라며 "전공을 살려 호텔에 취직해 빨간 냄비 프로젝트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음식은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일 뿐이죠. 어르신들 뿐 아니라 동년배 젊은 친구들도 서로 밥지기, 밥친구가 될 수 있어요. 앞으로 SNS와 ICT기술을 활용해 누구나 밥지기·밥친구·이웃지기로 등록하고 내 주변이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완하겠습니다."

/박근하 시민기자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6명 환자에 새 생명 주고 떠난 '천사 선생님'

장성 삼서초 유치원 김미숙 교사

뇌사 판정에 장기 기증

뇌사 판정을 받은 여교사가 다른 환자들에게 자신의 장기를 기증해 새 생명을 나눈 뒤 승천한 삶을 마감했다.

31일 조선대병원에 따르면 지난 29일 뇌사판정을 받은 장성 삼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김미숙(여·54) 교사가 자신의 장기를 기증한 뒤 세상을 떠났다.

그녀가 기증한 장기는 양쪽 폐와 신장·간·각막 등으로 6명의 환자에게 각각 기증, 인체조직까지 기증하면서 수십여 명에게 새 생명을 나눴다.

평소 건강했던 그녀는 지난 26일 돌연 쓰러진 뒤 뇌출혈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

았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장기기증에 관심을 갖고 있던 김 교사는 '불의의 사고'가 닥칠 경우 아픔을 가진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나눠 주고 싶다고 가족들에게 밝혀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들은 그의 뜻에 따라 이번 장기기증을 결정했다.

장기를 기증한 김 교사의 여동생은 "언니의 사랑이 다른 환자들에게 전달됐으면 한다.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육군 제31보병사단 부대창설 61주년 기념식

육군 제31보병사단은 지난 31일 사령부 대연장에서 지휘관과 장병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대창설 61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1955년 2월 강원도 화천에서 창설된 31사단은 같은 해 4월 광주로 옮겨와 61년간 항토방위의 책임을 다했다. 전군에서 가장 긴 2682km의 해안선 경계, 16만 광주·전남 예비군 동원태세 확립, 340만 광주·전남 지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켰다.

2015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2002한일월드컵, 2012여수세계박람회 등 굵직한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지원했다.

권혁신 31사단장은 "창설 61주년을 맞아 변화와 혁신을 거듭해 지역주민에게 신뢰와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총장부대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통합 광주시체육회 신입 사무처장 김성규씨

통합 광주시체육회가 첫 이사회를 열어 상임부회장과 사무처장을 비롯, 주요 임원을 임명하는 등 조직을 정비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시체육회는 31일 열린 이사회에서 1처, 1본부, 3부, 9팀, 1센터로 운영하는 조직 개편안과 함께 김성규 전 생활체육회장을 상임고문으로 위촉했다.

또 체육회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갈 상임부회장에 전 체육회 유재신 상임부회장을 임용했

다.

통합체육회 설립을 맡게 될 초대 사무처장으로는 김성규(사진) 전 생활체육회 사무처장이 임명됐다. 동급의 체육시설 본부장은 피길전 전 체육회 사무처장을 맡겼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이세돌 맥심배 4강 진출

이세돌 9단이 인공지능 '알파고'와 대국 후 처음 나선 대회에서 승리했다.

이세돌 9단은 30일 서울 성동구 한국기원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17기 맥심커피배 입신최강전 8강전에서 김지석 9단에게 172수 만에 백 불계승을 거뒀다.

이번 승리로 이세돌 9단은 맥심배 4강에 진출했다.

맥심배 4강은 이세돌 9단-박영훈 9단, 강동운 9단-목진석 9단의 대결로 펼쳐지게 됐다. 이 대회에서 이미 네 차례 우승컵을 들어 올린 이세돌 9단은 다섯 번째 정상에 도전한다.

국내 랭킹 2위인 이세돌 9단은 5위 김지석 9단 상대 전적을 14승 9패로 벌렸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54 FAX 062-222-4938. 222-4918

학측

- ▲강성용·박춘자씨 장남 유락군 정병수(농협사료 나누공장)·이애순씨 장녀 다은양=17일(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마리아유스퀘어, 피로연 2일(토) 오후 5시 광천동 수아비스웨딩홀.
- ▲정원순·이순희씨 장남 재식군 윤종록(조선대 교수)·함영순(광주예술영재교육원)씨 차녀 아영양=3일(일) 낮 12시40분 능성동 라페스타 2층 엘루체움.
- ▲송영호씨 차남 진영군 김재범(함평법무사)씨 장녀 경인양=9일(토) 낮 12시 30분 경기도 성남시 W스퀘어 8층 제플을 010-2036-7494.
- ▲조영목(공인중개사)·설용희씨 장남 인식군 송병영·이갑숙씨 장녀 민아양=10일(일) 오후 1시 경남 창원시 웨딩의전당.

중친회

- ▲전주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지원 나누분원(분원장 이응만) 정기총회=1일

- (금) 오전 10시 나주시 성북동 미도 예식장, 문의 분원장 이응만 010-7250-6688.
- ▲경주김씨 광주·전남총회 재광 이사회=6일(수) 오후 6시30분 광주시 동구 중앙로 예술의거리 건너편 화랑궁 문의 김재찬 010-6455-6296.
- ▲동래정씨 광주·전남총회(회장 정진원) 시조산 한식향사참배=5일(화) 오전 10시 부산시 진구 양정동 469 화지산 선영, 출발지 광주시 서구 능성동 상록회관 앞 오전 6시, 문의 상무이사 정영선 010-3609-2523.
- ▲전주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지원 장흥분원(분원장 이기철) 정기총회=6일(수) 오전 11시 장흥군 관산읍 옥당리 고읍 새마을금고 2층, 문의 분원장 이기철 010-3626-3110.
- ▲전주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지원 서구분원(분원장 이정문) 정기총회=8일(금) 오전 10시30분 광주시 서구 금동동 서창농협 3층 대회의실, 문의 분원장 이정문 010-8831-8507.
- ▲나주정씨 대동종약원(회장 정철준)제62회 정기총회=9일(토) 오전 11시 광주시

북구 운동 아태리안교회 062-512-0191.

동문회

- ▲송원고 총동문회(회장 박찬갑) 4월 정기월례회=4일(월) 오후 7시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 델리하우스 062-384-7447.
- ▲목포고 제5회 동창회(회장 최창열) 월례회=5일(화) 오후 6시30분 광주시 동구 금강산식당 062-224-0808.
- ▲제4회 재광 금일중 총동문회 정기총회 및 한마음 체육대회=16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광주시 남구 송원대학교 대운동장 문의 이경택 사무총장 010-3627-2273.

알림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광주시 동구자원봉사센터 살맛나는

경로당 문화활동 강사=건강증진·여가프로그램(요가·건강체조·웃음치료 등) 진행 가능한 개인이나 단체로 동구지역 10개 경로당에서 활동, 문의 062-228-1365.

▲사회복지법인 수완실버빌 노인종합복지센터=65세 이상 요양등급판정 1~2등급 인정받은 자, 기초생활서비스·의료서비스·재활서비스, 여가, 사회, 주·야간 보호. 062-959-2340.

▲광주생명의전화 한마음가정폭력상담소 무료 상담 및 법률·의료비 지원=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직장 내 성차별, 이주여성 문제 등 상담 062-233-9192.

모집

▲정원타이거즈 사회인야구 회원=야구에 관심 많은 사회인 야구단원 모집, 주말 연습 및 경기 진행, 문의 정원타이거즈 감독 010-9092-0343.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지부=미혼모 상담, 임양상담 24시간, 무료 숙식보호 및 안전한 분만지원,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취업지원 및 학원비 지원 062-232-

2043.

▲디자인 습 제작 판매과정 수강생=천연비누, 천연화장품 강좌, 국내최초 디자인 습 국비지원 학원, 국제공인아로마테라피스트가 직접 강의. 재료비·교재비 무료. 한마루학원 070-7801-8004(www.ihanmaru.co.kr)

<p>301호 故김금순 님(여/86세)</p> <p>子/子婦 : 손경우/이명희, 장매/정명경, 장호/최영미 女/婿 : 손미숙/최완용, 원희 *발 인 : 4월 1일 *장 지 : 영락공원</p>		<p>401호 故이민환 님(남/89세)</p> <p>子/子婦 : 이재호/최지영, 재민/김주연, 재영/김민서 女/婿 : 이민선/박호진 *발 인 : 4월 1일 *장 지 : 화순영남선영</p>	
<p>402호 故백관수 님(남/82세)</p> <p>子/子婦 : 백화인/김미숙, 재호/정영, 권규리 女/婿 : 백수경/정삼주 *발 인 : 4월 1일 *장 지 : 영락공원</p>		<p>101호 故최선희 님(여/60세)</p> <p>子 : 김정원/정민 夫婿 : 김현철 *발 인 : 4월 1일 *장 지 : 영락공원</p>	
<p>102호 故임성기 님(남/63세)</p> <p>子 : 임옥진 女/婿 : 임희경/함원수 未亡人 : 문경례 *발 인 : 4월 1일 *장 지 : 장성진원만연영 *연락처 : 227-4000</p>			

孝 **마음까지 편안**
금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